

주춤하던 광주·전남 코로나 또 역대 최다

스텔스 오미크론 여파 하루 신규 확진자 3만명 근접 정부 “오미크론 유행 정점 지났지만, 감소세는 아직”

감염속도가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광주·전남을 강타하면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서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만 2301명, 전남 1만 7462명 등 2만 9763명이 신규 확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 지역 내 최다 확진 기록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일일 최다 확진기록은 지난 16일 2만 7967명이었었다.

광주에선 이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9명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33명이나 늘어나는 등 ‘스텔스 오미크론발’ 시인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일상생활 접촉과 기존 집단 감염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광주에선 3월 4주차 기준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76.7%에 이르고 있다.

광주에선 이날도 가족·지인·직장 동료 간 일상접촉에 따른 감염이 이어졌고, 기존 감염원인 요양병원 4곳에서 140명이 추가됐다. 20대 이하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40.9%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의 감염세도 두드러졌다.

전남도 이날 22개 전체 시·군에서 일상접촉 등에 따른 확진자가 쏟아졌다. 지역별로는 순천 3342명, 여수 2947명, 목포 2389명, 광양 1710명, 나주 1201명, 무안 819명, 해남 551명, 화순 467명, 영

광 444명, 영암 423명, 완도 404명, 고흥 394명, 담양 317명, 보성 307명, 장성 284명, 구례 262명, 장흥 259명, 함평 239명, 강진 210명, 진도 191명, 곡성 175명, 신안 127명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7만 7087명 급증한 42만 4641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났지만, 아직까지 감소세가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라면서도 “다만 아직은 감소세가 완만하고, 오미크론의 세부계통인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불확실성 요인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 즉시 철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본(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또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재원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저희와 기재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길게 줄 선 해외 출국자들.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軍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첫 시험발사 성공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첫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향후 자력으로 군 정찰용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개발에도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 등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거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ADD 주도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데 따른 결과물이다. 특히 이날 발사 성공은 고체 연료 추진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이 작년 7월 성공한 데 이후 8개월 만의 성과다.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된다. 액체연료 추진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도 쉽다. 또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제67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 접수 기간 : 음악·무용·국악 4월 7일(목)~13일(수), 미술·작문 7월 1일(금)~7일(목)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제67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립니다.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 자격 :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참가 부문 :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 접수 방법 :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 경연 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062-220-0541

光州日報社

日 교과서 정부 견해 따라 수정 14건 사상최다

2014년 아베 정권 때 기준 개정 일본내 “정부 개입 우려” 목소리

올해 일본 역사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자국 정부 견해에 따라 ‘중군 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9일 종료한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역사 교과서와 정치·경제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확인된 것은 14차례에 달했다. 대부분이 ‘강제연행’, 혹은 ‘연행’ 등의 표현을 지적하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모두 ‘동일’으로 수정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고쳐 쓰도록 했다. 2014년 아베 정권 때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증 기준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증 신청본이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아니라 지적을 받고 표현을 고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중군 위안부’라는 말

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에서 결정했다. 또 ‘강제연행’, 혹은 ‘연행’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따라 수정한 사례가 올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왔다. 20년 전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요시다 유타카 히토쓰바사시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포함한 용어를 각의 결정에서 정부 견해대로 고쳐 쓰게 하면 집필자는 저항할 수 없고 검증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과서 회사가 정부의 뜻에 따라 검증 신청 전에 고쳐 쓰는 등 자율규제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에 눈을 돌리지 않고 듣기 편한 이야기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건물 대량보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고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부지, 임야, 매매

- 1 /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철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텔라블루 129㎡(39평)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9억원
- 2 /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철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부지(주거 2층)**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평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2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평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홍주 010-3454-2389